2014 S/S 프레미에르 비죵 시즌 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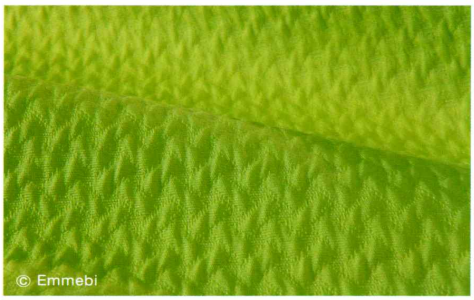
베스트 : 2014년 춘하시즌 국제 바이어들이 프레미에르 비죵 전시회에서 가장 선호한 아이템 분석

프레미에르 비죵 베스트 설문 조사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 조사는 전시회에서 선별된 국제 섬유업체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또한 컬러, 소재, 비주얼 효과, 터치감, 데코레이션, 가공 타입 등을 묻는 설문 조사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월 12일에서 14일까지 제출된 260개의 설문지를 토대로 프레미에르 비죵 패션팀이 분석한 2014년 춘하시즌 바잉 트렌드를 공개한다. 즉석 폴라로이드와도 같은 이 분석은 시즌 베스트 아이템을 선별하고, 컬렉션 창조 단계에서 디자이너들의 바램과 직감을 분석하고 있다.

시즌 베스트 컬러

이번 시즌에는 컬러에 확실한 날개가 달렸다. 컬러에 차별화와 대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시즌에서 잘 보여준다. 이같은 컬러는 스포츠 웨어에서는 물론이고, 이번 시즌 생생함이 더욱 두드러지는 탑 아이템과 여성스러운 상의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모든 마켓에 블루 컬러가 주를 이룬다. 신선하고 밝은 톤의 블루 컬러가 대두된다.

2014년 춘하 시즌 원단 하이라이트



자카드의 성공적인 변신.

자카드가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자카드는 장식이 배제되고 추상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바이어들도 이를 반긴다. 기하학적 무늬 직물이나 소재 효과가 있는 자카드에 질감과 프린트 사이의 모호함이 강조된다. 니트류에서는 편한 팬츠나 자켓 아이템에 이 같은 새로운 자카드가 주로 사용된다. 셔츠에서도 작은 패턴 조직이 점점 더 사용된다.

예시 원단 : © Emmebi



더 매트하게, 더 신선하게, 더 깨끗하게

매트한 효과가 점차 선전하고 있다. 빈티지 워싱은 이제 끝났다. 강렬한 컬러의 더욱 신선한 워싱이 선호된다. 어디에서든지 깔끔함, 깨끗함이 우선적이다. 코튼 소재 정장의 비중이 커졌다. 더 시크하고 섬세한 동시에 더욱 밀도 있는 코튼이 많이 요구된다. 코튼 및 코튼/리넨에 이러한 시크함이 가미되어 캐주얼웨어를 더욱 세련되게 해 준다. 여성복 바이어들은 귀족 풍의 새틴 곡선을 떠올리게 하는 실크 감촉의 코튼을 찾는다.

예시 원단 : © Bossa shirting

모래 알갱이 효과

모든 방문객들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듯한 미세한 돌기를 선호한다. 지배적인 식물 효과와는 다른 효과를 주는 우툴두툴한 돌기 있는 원단을 선호하는 것이다. 두꺼운 코튼이나 리넨의 돌기는 단색 원단에 활기를 더해준다. 정장 소재에서도 자갈과 같은 진동 효과를 내는 섬세한 돌기를 지닌 원단이 인기있다. 니트류에서는 크레이프, 비스코스도 많이 찾았지만 코튼 소재도 인기가 있었다. 실크류에서는 상의와 원피스용으로 가볍고 얇은 크레이프를, 정장용으로는 조금 더 무거운 크레이프를 많이 찾았다.

유동성보다는 유연성

유동성이 2013년 춘하 컬렉션의 전성기에 이어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힘을 점차 잃어가는 듯하다. 이제는 감촉을 지닌 모든 것을 주시해야 한다. 단단한 재질, 바스락거리는 재질, 탄력 있는 재질의 소재가 눈길을 끈다. 바이어들이 유연성을 점점 더 많이 찾는다는 것은 좀 더 견고한 유동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성이 더욱 강조되는 흐르는 듯한 실크, 액티브 스포츠에 나타나는 여성미, 정장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리넨의 시크한 유연함이 선호된다.

예시 원단: © Debs



확실히 선호되는 그래픽 패턴물

사건 한 가지 : 플라워 프린트가 추상적 프린트와 스트라이프에 자신이 지켜온 1위 자리를 내 주었다! 도트 프린트, 착시 현상 프린트, 규칙적인 스트라이프 프린트가 점점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섬세하게 프린트된 모티브와, 보다 많은 선으로 구성된 모티브가 새롭게 떠오른다. 장식에서의 변화 : 거대한 사이즈를 지닌 장식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중간 혹은 작은 크기의 모티브가 선호되는 경향이다.

예시 원단: © Brugnoli



복종별 컬러 및 직물
여성복

BEST OF SAISON PREMIÈREVISION

2014년 춘하 시즌 여성복의 궁극적 목적은 화려함은 피하면서 개성이 강한 여성미를 다시 그려내는 것이다. 즉, 우아함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섬세함과 판타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바이어들은 시각적 측면 외에,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독특함을 찾는다. 더 많은 소재감, 터치감의 요소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좀 더 신선하고, 정통적이며, 현대적인 관능미가 모색된다. 유동성과 판타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테크닉한 터치를 가미하기 위해 스트레치를 요구하는 바이어가 늘어났다. 바이어들은 투박함과는 거리가 먼, 요철이 있고 투명한 하이브리드 리넨, 코튼, 실크 등을 선택하였다.

패턴 & 모티브

리드미컬한 기하학적 구조. 작은 전체 프린트, 선으로 구성된 패턴, 중간 크기의 뚜렷한 모티브 같은 그래픽 장식이 다시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2톤 컬러가 급상승하고 있다.

멀티컬러의 바이브레이션. 여성적 특징을 주기 위한 멀티컬러가 점점 더 모색된다 : 이카트 효과, 진동 효과를 내는 프린트, 생기 있는 트위드, 미카도 스트라이프

매혹적인 꽃무늬. 자주 반복되는 꽃무늬 모티브로, 이번 시즌 활짝 핀 부케와 정원 풍의 수채화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강도는 낮아졌다.

탑 및 원피스

이리데신의 영롱한 광택. 광택의 진화 : 자개 광택, 레이스와 자수에서 느껴지는 광택과 투명함, 니트와 실크의 반짝임

풍부한 유동성. 물성이 강조된 유동성이 선택되면서, 유연함이 유동성을 능가하고 있다.

구조적인 섬세함. 형체를 지닌 가벼움이 강조된다. 밀도 있는 실크/코튼, 견실한 투명함, 기하학적인 기퓌르와 레이스

TOP COLOURS



1 21 crazy geranium
2 17 white page
3 14 scarlet cable
4 16 inescapable blue
5 15 rose resin
6 3 acidic LED
7 4 blue pill

자켓과 앙상블

3D장식. 부조 효과를 지닌 자카드, 가벼운 고프레, 성긴 피케, 두꺼운 자수류가 선호되었는데 이는 실크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대나무 섬유와 라피아. 부드러워진 매크로-방적, 뚜렷한 체크, 두드러지게 각이 진 구조가 인기.

유연한 크레이프. 실크류 및 여성적 드레이프 소재에서 프린트에 힘입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소재. 니트류에서는 3위를 차지한다.



시크해진 스트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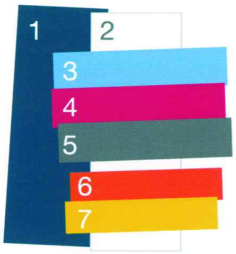
편안함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위해 스트레치가 선호된다.
엘라스탄이 섞인 듯한 실크와 리넨은 글래머러스한 여유, 일상에 시크한 착용감을 준다.
여성복뿐 아니라 남성복, 캐주얼에도 세미 스트레치가 선호된다.

BEST OF SAISON PREMIÈREVISION

복종 별 컬러 및 직물
남녀 캐주얼웨어

캐주얼과 포멀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도시 남성들에게 불어든 편안함이라는 컨셉에 이어,
세련된 캐주얼의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캐주얼웨어 전문가들은 엘레강스와 판타지를 강조하고 있다. 남성적 시크함에서 나타나는 섬세함과 무결점을 차용하려는 것이다! 2014년 캐주얼웨어 소재의 표면은 매끄럽다. 말끔하게 가다듬어진 코튼과 리넨, 깔끔한 데님 워싱이 인기있다. 여성적인 글래머 터치도 주목할만 하다. 이러한 터치로 팬츠와 니트 탑에 사용된 자카드가 인기를 누린다.

TOP COLOURS



1 16 inescapable blue
2 17 white page
3 11 blue chalk
4 21 crazy geranium
5 2 utterly grey
6 14 scarlet cable
7 12 transgenic yellow

탑

장식 니트. 여성 캐주얼에서는 이리데신의 성긴 니트류, 남성 캐주얼에서는 셔츠 느낌의 스트라이프, 유니섹스에서는 그래픽 자카드가 인기를 끄는 등 판타지 효과가 더욱 강력해졌다

식물성 선염 직물. 캐주얼 디자이너들은 자연 그대로 느낌의 상큼한 셔츠를 연출하기 위해 불꽃 무늬 스트라이프와 신선한 느낌으로 워싱된 리넨 체크를 사용했다.

캐주얼한 가벼움. 섬세함과 편안함을 믹스하고자 통기성 강한 셔츠 직물과 셔츠 중량의 데님, 베일처럼 얇은 니트를 선택한다.



자켓과 팬츠

편안한 긴장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함과 동시에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이다. 깔끔하고 컬러풀한 긴장감, 고른 워싱, 섬세한 컬러 코팅 소재가 바로 그 해결책이다.

확산되고 있는 판타지. 여성복에서 강조되는 특징으로, 자카드와 프린트 데님, 프린트 스트레치 코튼이 선호된다

생동감있는 리넨. 코튼/리넨 혼방이나 유연하고 워싱 처리된 두꺼운 리넨이 남성복뿐 아니라 여성복에서도 점차 강세를 보인다.

아늑한 여름

시원하게 가공된 테리와 부드러운 여름 니트 소재로 스웨트셔츠를 재해석하려는 시도. 이러한 시도는 탑뿐만 아니라 원피스에도 적용된다.

복종 별 컬러 및 소재
남성복

남성 시티웨어에 점차 캐주얼이 자리 잡는다. 매끈하고 깔끔한 효과와 신선함을 특징으로 하는 릴렉스한 감성을 선호.
과장된 편안함은 없다.
빈티지, "이미 한 번 입은" 외관, 워싱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시즌의 관건은 내츄럴과 시크의 완벽한 조합을 찾는 것이다. 상의에서는 하이 퀄러티 시크가 두드러진다. 컬러는 차갑고 패턴은 온화하다.
이번 시즌 특징은 리넨, 모헤어, 크레이프 등 선별된 소재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장 수트의 절제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컬러감이 한층 강해진 스트라이프, 프린트, 자카드 등 셔츠 판타지 디테일이 가미된다.

BEST OF SAISON PREMIÈREVISION

셔츠

날카로운 스트라이프. 세련되고 좁은 테니스 스트라이프. 굵은 스트라이프의 컬러는 밝고 다채롭다.

식물적인 섬세함. 섬세한 불꽃 패턴을 지닌 코튼-리넨 혼방의 선전.

미니어처 모티브. 패턴 모티브 활용이 증가하면서 셔츠에 일대 혁명이 불고 있다. 아주 작은 모티브들이 대부분의 프린트와 자카드에도 활용된다.

정장과 자켓

드라이하고 시크한. 리넨/울 혼방이 처음으로 울을 앞섰다. 드라이한 터치감이 선호되면서 모/모헤어가 선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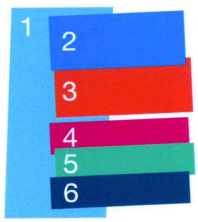
격자 무늬. 캔버스, 태프타 등 잘 짜여진 구조의 소재. 피케, 허니컴과 기타 격자 무늬 평직이 인기를 끈다

그래픽한 정밀함. 2톤 컬러의 촘촘한 하운드 투스가 지속적 인기를 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 체크도 선전하지만 그 인기는 줄어들고 있다.

밀도감 있는 가벼움. 밀도감과 가벼움을 동시에 찾는 바이어들이 늘어난 것이 남성복 소재에서의 특징이다. 섬세한 동시에 조직이 치밀한 원단이 선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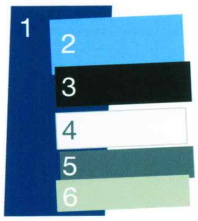


TOP COLOURS
Shirt



1 11 blue chalk
2 4 blue pill
3 14 scarlet cable
4 21 crazy geranium
5 19 blue grass
6 16 inescapable blue

TOP COLOURS
Man Jacket and Suit



1 16 inescapable blue
2 11 blue chalk
3 0 black
4 17 white page
5 2 utterly grey
6 6 mega marble

체크의 감소세

오랜 기간 동안 필수적 요소였던 타탄 체크와 스코틀랜드 체크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스트라이프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힘을 잃은 체크의 마지막 첨병은 2013 추동시즌 셔츠 소재에서 강세를 보였던 비쉬 체크로, 2014년 춘하 시즌 정장 소재에 선호된다. 윈도우 체크와 바코드 스트라이프가 새롭게 떠오른다.

복종 별 소재와 컬러
액티브 스포츠웨어

BEST OF SAISON PREMIÈREVISION

스포츠웨어에서는 여전히 소재의 기능성과 가벼움이 요구사항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판타지는 적정한 선에서 그 가치를 발한다. 장식이 가미된 방수처리 소재가 선호되는 것이다. 프린트뿐만 아니라 자카드도 시선을 끈다.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바이어들도 점차 코튼 효과를 지닌 소재를 찾는다. 식물성 외관을 지닌 순수 합성 소재나 기능성 코튼을 선택하는 등 자연을 담은 소재를 찾는다.

테크닉한 가벼움. 섬세함이 가미된 밀도감이 중요하다. 다기능성 이중지는 얇아야 하는 반면, 가장 얇은 폴리에스테르는 불투명해야 한다.

기능적 자연성. 코튼-폴리아미드와 기능성 코튼의 선전이 돋보인다. 100% 합성소재도 매트한 감과 선으로 이루어진 비주얼, 터치감으로 인기를 끈다.

아웃도어 판타지. 선염 패턴과 프린트, 간혹 자카드가 선호된다. 윈드브레이크에서 트렌치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비주얼이 점점 더 선호된다.

살아있는 조각처럼. 수영복에서는 필수 요소인 2중 탄력성이 극단적 섬세함과 도드라진 표면을 지닌 판타지의 두 방향으로 바이어를 이끈다.



TOP COLOURS



1 16 inescapable blue
2 3 acidic LED
3 0 black
4 2 utterly grey
5 14 scarlet cable
6 20 lilac power
7 6 mega marble



지속되고 있는 유동성

스포츠웨어의 특징 : 다른 복종에서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유동성이 여기서는 힘이 커지고 있다. 스포츠맨들의 귓전을 스치는 실크 감촉을 떠올린다. 때로 실크 감촉도 가미되는 흐르는 듯한 합성 소재가 선택된다.

복종별 베스트 이미지도 확인하세요
www.premierevision.com/Saisons-de-mode/Printemps-Ete-14/Best

온라인 스토어에서 2014년 춘하시즌 패션 정보를 확인하세요 :
www.premierevision.com/boutique/Pass-publication-seminaires

자료출처: 프리미에르 비죵 국내사무국